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업
계
혁신

위상강화
상생발전
가치상승

수신 각회원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특별단속 실시 알림 및 일상점검 중점 계도 요청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물자동차 특별단속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분부 안전관리처-550호(`24.2.29.)관련입니다.
3. 경찰청에서는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화물차 정비 불량·과적 행위 특별단속’을 `24.3.4.(월)부터 약 두달간 실시(붙임2참조)함을 알려드리니, 각 회원님께서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내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차량 운행 전 타이어 상태 육안 점검 등의 일상점검 실시 및 안전한 자동차 관리를 위해 제작사가 권장하는 시기를 준수하여 정기점검을 수검할 수 있도록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화물차 정비 불량·과적 행위 특별단속 개요
 - (특별단속 실시기간) `24.3.4.(월) ~ 4.30.(화)
 - (단속 기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 (단속 장소) 화물차 사고 다발지점
 - (중점 단속사항) 정비불량, 과적,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불법 개조, 판스프링 불법 장착,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협 요인

붙임 1.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분부 공문 사본 1부.

2. 화물차 특별단속 관련 언론보도 1부. 끝.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 사 장 전 재



시행 경기도화협 제 151 호('24. 3. 5.)

민원 핫-라인 (031)245-5220

우 1630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3(송죽동) 4층 / www.kgta.or.kr.

전화번호 (031)243-5221,2. 팩스번호 (031)251-9770 kgta5221@naver.com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형 화물자동차 운행 전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수검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월 25(일) 경부고속도로 안성IC 부근에서 화물자동차 바퀴가 이탈,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중인 전세버스와 충돌하여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26 KBS 9시 뉴스 보도) "고속도로 시한폭탄?...화물차 바퀴관리 괜찮나?"
3. 화물자동차의 주행장치에는 타이어, 휠, 휠너트, 구동축, 허브베어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이어 노후, 휠손상 및 휠너트 고정 불량, 허브베어링 손상으로 타이어가 빠지거나 손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가 타이어 상태 육안 점검 등 차량 일상점검을 시행하고, 안전한 자동차 관리를 위해 제작사에 권장하는 시기를 준수하여 정기점검을 수검할 수 있도록 각 시·도 연합회 통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경기남부분부장

수신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차장 이상현 처장 전결 2024. 2. 29. 김양숙

협조자

시행 안전관리처 (경기남부)-550 (2024. 2. 29.) 접수

우 1643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분부 (서둔동) / www.kotsa.or.kr

전화번호 031-297-5000 팩스번호 0502-384-5380 / lsh0417@kotsa.or.kr / 대국민 공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

타이어 빠짐 사고에 경찰 "화물차 정비 불량·과적 특별단속"

화강윤 기자

입력 : 2024.03.03 10:16 | 수정 : 2024.03.03 10:16



▲ 달리던 화물트레일러의 타이어가 빠지며 관광버스를 덮친 현장

경찰청은 내일부(4일)터 4월까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화물차 정비 불량·과적 행위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의 바퀴가 빠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화물차 안전불감증을 불식시키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사고 다발 지점을 중심으로 중앙선 침범 등 주요 도로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력해 정비 불량, 과적,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불법 개조, 판스프링 불법 장착,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협 요인도 단속·수사합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선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화물차 정비를 충실히 하고 즐리면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한 뒤 운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던 25t 화물트레일러의 뒤편 타이어가 분리돼 마주 오던 관광버스의 앞유리를 깨고 들어가면서 운전기사과 승객 1명이 숨졌고 다른 승객 1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